

# 나는 존재를 넘어서 '있는' 바로 그것 (1부)

| 프란시스 베넷 | 노호상 옮김 |

토마스 머튼에서 숭산 선사를 거쳐 일상의 암환자까지 자신의 스승으로 삼은 저자가 삶이라는 '스토리'를 넘어 지금여기로 돌아오는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 ‘프란시스 이야기’

나를 내 자신의 발견으로 데려갔던 여정의 일부를 독자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을 따라 가도록 돕기를 바랄 뿐이다.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위 나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나는 이력서를 작성할 일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마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다. 이력서를 완성한 후 형식에 맞는지 철자는 틀리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다시 읽어 보면서, 마치 다른 누군가의 삶 또는 소설 속 인물에 대한 간단한 묘사를 읽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프란시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스토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 스토리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인간 극장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흥미로운 인물이 때론 이야기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연극이나 영화, 어린이들의 이야기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는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야기는 그저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이야기가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하며, 이야기 자체에는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프란시스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이다. 다만, 당신이 이야기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봐주기 바란다.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그 알아차림의 대상은 스토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스토리는 알아차림 이후에도 계

속된다.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즉 단순한 이야기로 본다는 것이다. 더 이상 스토리를 실재라 여기지 않는다.

이상주의적이었던 젊은 시절, 나는 신의 현존이라 생각했던 어떤 큰 의미를 경험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탐구심에서, 게쎄마니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승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의 스물세 번째 생일이 딱 일주일 지났을 때였다.

평범하고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 같이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됐는가? 씨앗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심어졌다. 나는 종교적인 시와 노래를 자작하곤 했다. 내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는 나의 글을 읽어보니 토마스 머튼의 글이 떠오른다고 하셨다. 토마스 머튼은 켄터키에 있는 게쎄마니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었던 사람이다. 선생님께서는 머튼이 쓴 『칠층산』을 나에게 주셨다. 그 책은 머튼이 대학시절 뉴욕에서 자유롭고 놀기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영성의 생활로 전환하고, 그 결과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수도승이 된다는 내용의 자서전이였다. 머튼의 삶은 그때까지 곱게만 자라온 나의 삶과 아주 달랐지만 그는 문학적 소양을 지닌 지성인이었고 나 역시 당시에는 스스로를 예비 지성인으로 여기면서 그의 글과 학문적 배경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수도원의 삶과 신의 현존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찾는 데 일생을 바치면서 침묵 속에서 사는 것에 매료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를 매료시키고 동시에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매우 사교적이고 수다스러운 젊은이로서 친구가 많고, 여러 가지 활동과 취미생활, 음악과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비록 내가 신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은 구도심에서 영성적으로 아주 강렬하고 열렬했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깎고(긴 금발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침묵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승이 된다는 생각

은 나에게조차도 약간은 극단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게세마니 수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 수도원은 내가 당시 열렬히 탐독했던 많은 책들의 저자인 토마스 머튼이 살았던 곳이었다. 주말이면 나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켄터키에 있는 수도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 길은 네 시간의 거리였다. 나는 수도원 게스트 하우스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이러는 몇 년 동안 나는 몇몇 수도승과 사목 담당 책임자인 가일즈 수도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머튼을 알고 있었고, 머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나를 사로잡았다. 머튼은 나의 영적인 영웅이 되어버렸다. 22살 때까지 나는 그의 모든 책을 섭렵했고 나도 트라피스트 수도승이 될까 하는 생각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몇 년간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몇몇 수도승들을 잘 알게 된 후에는 게세마니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훨씬 덜 두렵게 되었다. 그래서 1981년 가을 나는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와 같은 유쾌한 성자나 아니면 적어도 나의 영웅인 토마스 머튼과 같은 현대의 신비가가 되겠다는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이는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신을 열망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수도원 입회로 응답받기를 바랐다.

## 토마스 머튼과 선禪 그리고 신의 현존

토마스 머튼이 25년여 동안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서 쓴 모든 글과 더 친숙하게 되자, 나는 그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동양의 영성과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을 접하게 되었다. 머튼은 선불교, 힌두 아드바이타 베단타 그리고 수피즘과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들을 깊이 천착穿鑿했

내 자신이나 신, 일어났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 등  
모든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내가 그 이야기들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다.

다. 머튼이 죽기 10년 전에 쓴 그의 마지막 글은 이런 다양한 영적인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토마스 머튼이 죽은 지 13년이 지난 다음, 내가 그곳에 있을 당시에도 여전히 계셰마니에 뚜렷한 영향을 남겨 놓았다.

우선 내가 잠정적으로 서약하고 자칭 계셰마니의 젊은 수도승이 되었을 때, 어느 한국인 선사禪師가 수도원을 종종 방문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참선의 시간을 같이 갖곤 했다. 나는 프로비던스 선센터 설립자인 그 선사님의 모든 수련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켄터키 렉싱턴 근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방문하려고 켄터키에 올 때마다 우리 수도원에 들러 수도사들에게 선 명상을 가르치고 간단하게 수련을 했다. 나는 또 이 선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머튼의 책 『신비가와 선사들』에서 읽었던 선불교 승려들처럼 깨닫게 될 수 있는지 알고자 노력했다.

나는 이 선사와 함께 선 수행을 하면서 여러 번, 약간의 영감을 주는 일별, 혹은 선사께서 사토리見性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나는 오롯이 현재 이 순간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했다. 내가 첫 번째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선사님과 선 수련을 하고 난 다음 계셰마니의 아무런 장식도 없는 수도원 회랑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 견성에 대한 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록했다.

## 나는 그것

태양은 그저 밝게 빛나고,  
투명하고 길고 좁은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들고,  
밝고 흰 햇빛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네.  
이 아름답고 명징한 빛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네.

이것은 우선 짧은 것이었지만 완전하게 의식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황홀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재에 대한 자각은 참선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러면서 나는 현재 순간의 각성의 경험과 내가 신의 현존(내가 어린 시절과 10대 때 가졌었던 순간적인 일별—瞥)이라 불렀던 것의 경험 사이에 연결을 시작했다. 그 둘은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경험으로 보였다. 나는 초월적인 사랑과 즐거움과 황홀한 각성과 현존을 양쪽의 경우에서 똑같이 경험했다. 양쪽의 경우에서 똑같이, 습관적인 의미에서의 작은 '나'로부터 자유로운 경험, 말 그대로 그 '나'의 바깥에 서 있는 경험<sup>ex-stacy</sup> 즉 황홀함을 경험했다. 나는 신의 현존 혹은 현재 순간의 각성을 경험하는 동안 개인의 역사, 이름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나'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개인의 가능성은 정말 없어진 멋진 일별을 가졌다. 있었던 모든 것은 이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었던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룩한 신비의 현존이었다.

나는 1987년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떠난 뒤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

면서 얼마 동안 아버지를 보살폈다(아버지는 두 번 암으로 진단을 받고 결국 그로 인해 1999년 돌아가셨다). 그러나 1993년과 1998년 사이에는 여러 차례 트라피스트 수도승에게 돌아갔었는데 그때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계썰마니 자매 수도원이었다.

나는 그 시기에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어, 친구이자 선생인 에릭 콜빅을 만나게 되었다. 에릭은 매사추세츠 배리에 있는 인사이트 명상회에서 조셉 골드슈타인과 샤론 살츠버그라는 미국인 위빠사나 선생 밑에서 훈련을 했다. 일상적인 수도원 생활 속에서 나는 위빠사나 기법에 근거한 매우 간단한 마음챙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었다. 수행에 대해서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에릭을 찾곤 했으며 그는 항상 현명한 충고와 도움을 주곤 했다. 비록 내가 에릭과 실제 수련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당시 나의 멘토이자 안내자였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는 따뜻한 영성적인 우정에 감사하고 있다.

1998년 나는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떠나 오하이오 콜럼버스로 돌아왔다. 그 시기에 만난 반테 헤네폴라 구나라타나Bhante Henepola Gunaratana는 나의 선생이자 영성적인 친구가 되었다. ‘반테 G’는 북미 지역에서 생존해있는 소승불교 승려 중에 최고령이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며, 현명하고 자비로운 선생으로 나의 또 다른 안내자였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199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반테 G에게 가서 웨스트버지니아 근처에 있는 그의 작은 숲 속 명상 수련 센터에서 1년을 살았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소승불교 교단에서 임시 승려직을 받고 수련 센터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그를 도왔다.

집중적인 위빠사나 수행기간 동안에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각성이

더 빈번히 더 지속적으로 있었고, 고요함과 명료함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완전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종종 고통의 감각이 있고 불만족이 일어나곤 했다. 또한 현재 순간, 혹은 ‘거룩한 순간’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여전히 나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수행 중에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 나는 여전히 현재에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다가 없다가 하는 듯했다. 나는 자주 현재 순간의 경험을 가졌으나 그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현존의 경험을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내면의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통찰은 내 자신이나 신, 일어났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 등 모든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들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닦아온 모든 통찰과 고요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부침浮沈을 더 유연하게 향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분명하게 어떤 상대적인 행복과 평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여전히,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반테 G와 공부를 하고 임시로 소승불교 행자가 된 후 2000년에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콜럼버스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91세로 돌아가시기까지 7년간 그녀를 보살폈다.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나는 2년 과정의 임상목회교육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를 이수하고 병원의 호스피스 목회자로 일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했으며 불치병을 앓는 그들의 경험을 함께 하는 흔치 않는 기회를 통해 무척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선사나 명상 스승들 못지않게 그 환자들 또한 내게 진정한 영적 스승이었다고 생각



한다.

## 나의 선 스승, 메리 부인

수년에 걸쳐 추구를 계속하면서 나는 훌륭한 스승들을 여럿 만났고 그들로부터 많은 ‘영적’ 진리를 배웠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중요한 스승들 중 한 명은 정식으로 영적 스승이라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만나 빈 전통적인 영적 스승들 못지 않게 그녀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내가 메리 부인을 만난 것은 호스피스 목회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부인은 원래 다른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 목회자와 잘 맞지가 않았다. 메리는 이 목회자를 그다지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었고, 목회자도 메리를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내게 혹시 부인을 방문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알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목회자는 부탁과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다. 메리 부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는 43세 여성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설암을 앓고 있으며 암이 얼굴로 전이된 상태라고 했다. “이 환자는 자신에게 이런 질병을 내린 것에 대해 하느님에게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에게 줄 수 없는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대리자(다시 말해, 목회자)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분노를 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행운을 빕니다!”

시작은 메리 부인의 치과의사가 발견한 혀의 병변이었다. 생체 검사를 해보니 치과의사의 염려대로 그것은 암이었고, 게다가 매우 희귀하고 악성인 종류였다. 내가 부인을 만나러 갔을 때는 이미 그녀의 얼굴

절반이 없는 상태였고, 살아갈 날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였다. 내가 메리 부인의 집 거실로 들어서자 그곳에선 그녀의 남편이 부인을 위해 환자용 침대를 설치하고 있었고, 하늘하늘한 시폰 실내복 차림에 속이 비치는 꽃무늬 베일로 눈 밑을 가리고 있는 자그마한 여성이 있었다. 베일 위로 나를 응시하는 청록색 두 눈은 길고 짙은 속눈썹과 초승달 모양의 눈썹과 함께 더없이 아름다웠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두 눈은 변함없으나 마치 다른 생애에서 온 듯한 사랑스런 젊은 여인이 디즈니월드 마법의 성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메리 부인이 헬로! 라고 새겨놓은 표지판을 들어올렸다. 그녀는 혀와 아래턱이 없어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판에 글씨를 쓰거나 침대 근처에 둔 작은 표지판을 들어야 했다. 나는 내가 호스피스 목회자라고 소개했고 그녀가 원한다면 방문하겠노라고 말했다. 일단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자 그녀는 의례적인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가 글자판을 잡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썼다: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요? 나는 즉각 나의 전 존재 속으로 슬픔과 연민의 파도가 밀려옴을 느꼈다. 몇 초 간 눈을 바라보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모릅니다. 메리 부인,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그 질문을 깊이 탐색해볼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간 뒤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대개 낮에 환자들을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지극히 현재에 충실했다. 그렇게 환자 곁에서는 그들에게 몰두했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고 내가 돌봐야 할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메리 부인의 경우는 달랐다. 첫 번째 만남 이후로 메리 부인과 그녀의 질문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떠오르는 것이었다. 부인의 질문은 마치 내가 선사들 밑


에서 공부할 때 붙들고 있던 정식 공안과도 같았다. 공안이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답이 없는 수수께끼 질문이다. 선 수행자는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공안을 붙들고 앉아있다. 선 수행자는 질문을 초월하는 것으로 질문에 답한다. 공안에 대한 답은 이성적인 마음을 만족시킬 대답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나의 선 스승님은 말씀하시곤 했다. “네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 삶은 메리 부인에게 매우 신비롭고 도전적인 공안을 던졌고 그녀는 분명 스스로가 이 질문이 되어있었다. 그녀는 매일 매 순간 그녀의 공안을 살고 공안을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선 수행자라면 바라마지 않듯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그녀의 공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메리 부인과 나 사이에 일종의 방문 의례가 생겼다.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방에 들어간다. 메리 부인이 헬로 포지판을 든다. 내가 미소를 짓는다. 그녀가 글자판에 이렇게 적는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그녀의 가족들이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가족들의 근황을 전하고 잠시 후 자신의 공안을 쓰기 시작한다. 그녀가 첫날 썼던 ‘왜’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은 대개 아니었다. 보통은 하느님에 대한 혹독한 불평의 형태를 취했다. 나는 괜찮았다. 나는 그녀가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부당하게 보였다.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 좋은 이웃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랑스럽고 선량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다. 암이라 불리는 이것은 그녀의 삶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서 빼앗기로 작정한 악의적인 도둑같이 보였다.

임상목회 교육과정에선, 삶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규범적인 대답을 내놓고 위로를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고통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단순한 것에서 치유의 위안을 발견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개인적인 스토리는 고통과 비애로 가득하며, 그런 고통에 대한 물질적 혹은 물리적인 해결 가능성이 없을 때가 많다. 죽을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이 죽음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종반전을 치르고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 포기하거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심리적 혹은 물질적 자원을 모두 끌어들이는 법을 차츰 배워간다. 메리 부인에게는 훌륭한 지성과 호기심이 강한 성격, 정의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녀가 삶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이 질병과 관련해서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에도, 그러한 부인의 자질이 제 역할을 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메리 부인을 방문했다. 그날 아침에 나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미사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벽에 장식되어 있는 실물 크기의 스페인식 십자가상을 올려다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눈길로 잔잔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성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상이 아니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분명히 커다란 고통 속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롭지 않았다. 찡그리고 뒤틀려 있었다. 그의 육신은 멍들고 찢어져 있었다. 십자가 위의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내 친구 메리 부인을 생각했다. 2천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메리 부인의 공안이 예수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공안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같은 선상에서 메리 부인으로부터 이 공안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내게 중요한 스승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날 오전에 부인의 집에 당도하자, 곧바로 일상적인 의례가 시작됐다. 그녀가 읊기의 글귀처럼 하느님에 대한 한탄을 썼다. 그러면 나는 어느 때처럼 그녀가 쓴 것을 읽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보통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한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고 그러면 대개 이삼십 분 정도 계속됐었다. 그리고 나면 그녀의 남편이 들어와서 약 같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고, 다 함께 잠시 있다가 내가 떠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 날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감돌았다. 그날 오전 그녀의 방에 들어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이 메리 부인과 겹쳐 보였다. 부인을 쳐다 볼 때마다 그날 아침에 본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보였다. 그날 방안에는 신성한 현존으로 채워진 듯했다. 부인의 한탄이 10분 정도 이어지던 중 갑자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I Am That I Am』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란시스 베넷** Francis Bennett | 평범하고 사교적인 젊은 청년으로, 일반적으로 트라피스트 수도회로 알려진 엄격한 계율의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에서 명상가로서 영적인 삶의 부름에 따라 산 젊은이였다. 20세기의 개척자적인 기독교 신비가인 토마스 머튼은 프란시스의 영감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아드바이타 베단타 그리고 비아원성의 틀 안에서 프란시스가 가장 깊은 존재의 실재를 탐구하게 했던 것은 머튼의 영향이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의 삶을 떠난 이후에는 지역과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 2010년 미사 도중에 프란시스가 “의식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의 가슴 속에 순수한 알아차림이 신의 현존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신의 현존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밖에서 찾아왔던 바로 그것, 순수한 알아차림이었다.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한국금융연수원에 재직 중이며, 깨달음과 명상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